

# 사적 경제적 이전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40, 50, 6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

손 용 진\*

한국노동패널 9차(2006년) 자료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계신 1,280명의 40세 이상의 가구주를 표본으로 하여 세대 간의 관계를 사적 경제적 이전과 생활만족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령 집단에 의한 사적 경제적 이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40대(775명), 50대(395명), 60대 이상(110명)의 연령으로 구분하였다. 40대 집단에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뵈었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60대 연령에서 '가끔 찾아 뵈었다' 혹은 '거의 찾아뵈지 않는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40대에서 서로 준 적이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사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으며, 60대에서 드린 적만 있는 비율 혹은 전혀 교류가 없었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로 주고 받은 적이 있는 호혜적 사적교류의 빈도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현저하게 낮아졌지만, 60대 집단에서는 드린 적이 있었다는 일방적 사적 이전의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오히려 높거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고령가족에게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가계 부담 영역으로는 4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교육비와 원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하였고, 60대에서는 의료비와 주거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친인척관계 및 가족관계 만족도와 연령과 비교했을 때 연령대가 올라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졌다. 이것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성인이 된 가구자녀들의 분가 시작, 은퇴나 경제활동 축소로 인한 수입 감소, 질병의 이환율이나 유병율의 증가 등으로 가족/친인척과의 접촉이 낮아져서 만족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각각의 연령층에서 사적경제적 교류가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로 나누어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생활만족도와 비교하였다. 4,50대의 경우 사적이전이 일어났던 대상자 중에서 교육수준이 높거나, 월평균/작년 한 해 총소득이 높았을 경우, 금융자산/부동산자산이 많은 경우가 빈번 했고, 60대에서는 사적이전이 있었던 대상자 중에서 작년 한 해 총소득이 많았던 비율이 높았다. 4,50대에서 사적교류가 있었던 집단에서 단일문항 만족도(가족수입, 친인척관계, 가족관계) 및 총체적 만족도가 높았다. 60대 이상 집단에서는 가구 교류가 있을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4,50대에서 사적 이전이 도구적 혹은 정서적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하여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6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자신의 연로한 부모와 상호호혜적이 아닌 일방적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적교류가 부모-자녀유대 의식을 맺어주는 역할을 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 사적교류에 관한 연구를 연령집단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집단 간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며 60대 이상의 연령의 경우 이전의 연령과 비교하여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 I . 서론

현재 세대가 이전 세대와 어떠한 교류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고령 사회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 세대 간(intergenerational)의 관계는 긍정적인 교류가 있을 경우 사회적 지지망의 한 형태로 중요한 심리적/경제적 도움의 원천일 것이다. 사이가 좋을 경

\* 부산가톨릭대학교 노인요양관리학과 조교수

우 서로가 아끼는 마음이 있어 연대의식을 느끼게 되고 긍정적인 상호교류와 응집력이 높을 것이다. 사적 경제적 교류는 서로 간에 심리적 위안이나 동질의 가족의식을 확인하게 되어 의무적이거나 반드시 해야/주어야 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낮은 차원의 가족교류나 낮은 수준의 경제적 원조로 이어질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세대 간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경우 미래 고령인구의 소득 및 건강보장문제에 대해 갈등의 시각을 지양할 것이며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를 서로 고심할 것이다. 부정적인 세대 간의 관계는 경제적 교환관점에서 생산성이 저하된 고령세대에게 소득정책에 대해 매우 소극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갈등론적 시각에서는 향후 진행될 부과방식의 국민연금체계가 현재 근로세대에 의한 현재 은퇴세대의 재정을 부담으로 세대 간의 형평성(generational equity)에 비중을 두고 침해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60세 이상 인구는 생활비 마련이 본인/배우자(61.3%)가 가장 높았지만, 자녀/친척(34.1%)에 의한 보조가 높은 편이어서 사적 차원에서 경제적 부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사회(4.4%)에 의한 도움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모에 의한 경제적 이전의 비율이 높아 세대 간의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0세 이상 세대가 본인/배우자에 의해 생활비를 충당할 경우 근로/사업소득(65%)이 가장 높았으며, 재산소득, 연금/퇴직금, 예금(적금)의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노인들 스스로가 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40.1%), 건강문제(40.7%)라고 응답하여 공적 보장시스템이 열악한 현실 때문에 아직까지 사적 경제적 이전에 의한 가족의 역할을 실감할 수 있다(통계청, 2007).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연령에 의한 자녀-부모 간의 상호교류는 다르게 나타나며 상호호혜적 관계는 사회적 지지망에 형성을 위해 중요하다. 4,50대는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세대로서 자신의 성인 자녀와 연로한 부모와도 사적 경제적 이전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6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역할 전도가 일어나서 성인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존해있는 고령의 부모와 활발한 교류를 기대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더라도 연령이 낮은 경우 부모로부터의 이전소득에 의존할 경우가 많을 것이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역전되어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한 성인자녀가 경제력이 축소된 부모에게로 오히려 경제적 소득이전이 늘어날 것이다.

본 연구는 중년이후의 가구주세대가 연로한 자신의 부모와 사적 교류를 통한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성인자녀가 자기 부모와의 가족생활 만족도(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산하여)의 비율은 2,30대에 60%로 가장 높은 정점을 이루었다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40대에 52%, 50대에 43%, 60대 이상에서 44%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07). 이것은 연령에 의한 가족 만족도에서 연령집단 간을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연령차이(age difference)를 보여주고 있으며, 높은 연령층에서도 여전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 가족 유대감이 노년기에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아직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노년기의 소득보전을 위해 가족 간의 이전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만족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질병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부모의존(parental dependency)과 역할전도(role reversal) 등으로 알려졌다(Suitor, et al., 1995).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부모와 같이 있게 되는 기간이 늘어나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병 간호, 경제적 원조 등의 부담으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성인 자녀가 부모 소득에 의존하기보다 근로시장에 참여하여 스스로 소득창출을 하게 되고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세대의 높은 교육수준으로 직업 상 지리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자신의 부모와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게 되고 부모를 포함한 친인척과 접촉수준이 낮아지고 따라서 덜 가깝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일 수도 있다. 미국에서 조사된 종단적 연구에서 부모-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기능적 연대감(functional solidarity)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고, 어린시절의 자녀-부모관계를 부정적으로 기억할수록 연로한 부모에 대해 낮은 수준의 배려와 지원으로 이어졌다. 또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수록 연로한 부모의 심리적 안정감과 사망률위험(mortality risk)을 낮추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가구교류유무에 따른 특성, 가구교류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지경, 송은경, 2004)를 발전시켜 연령에 따른 가구교류유무와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중년이후의 가구주가 자신의 부모와 증여/상속을 제외한 사적 경제적 이전이 일어났을 경우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무엇이고 생활만족도와의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II. 선행연구고찰

### 1. 사적 경제적 이전의 이론적 배경

애착(attachment)이론에 의하면 영유아기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유아는 자연스럽게 부모나 양육자와 긴밀감을 형성하게 되고 상호교류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 점점 성장하면서 상호호혜적 관계가 유지되어 성인이 되어 부모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거나 질병 등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어린시절 애착관계의 연장선에서 경제적/심리적 원조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성인자녀-부모와의 사적 경제적 이전을 생물학적 발달관점에서 긍정적인 상호교류를 내재화하여 비시장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한다는 설명에 잘 부합된다. 교환이론(exchange)이론은 사적 경제적 이전을 공정성(fairness)과 상호호혜성의 규범(norm of reciprocity)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인간의 행위는 그 이면에 실질적인 혹은 잠재적인 상호원조를 전제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도구적(instrumental) 혹은 정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 이웃, 친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앞으로 자신이 어려운 경우에 도움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혹은 과거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만큼의 혜택을 경제적으로 지불한다는 공정성의 원칙에 매우 부합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받은 적이 없었을 때도 혹은 앞으로 받기를 기대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선의(beneficence)에 의해 타인을 돕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부모-자녀와의 상호교류는 부모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고 성인자녀가 부모의 지지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역할전도(role reversal)가 일어나게 된다. 부모-자녀 간에 서로 주고 받는 사적 경제적 이전은 가족/친지 간 사회적 지지이다. 세대 간의 사회적 지지의 형태는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및 평가적 지지로 구분할 수 있다(Kahn, 1994). 정서적 지지는 존중감 표현, 좋아하는 관심표명, 위안, 배려 등을 포함한다. 정보적 지지는 조언이나 제안하기, 지시사항, 적절한 자료 제공하기가 있다. 도구적 지지는 실질적인 형태의 도움으로 금전, 시간, 물질 등을 건네주기가 있다. 평가적 지지는 개인의 행동에 대해 피드백이나 판단을 해주는 정보제공의 하위 영역으로 자신이 눈치채지 못한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 2. 사회인구학적 요소와의 관련성

세대 간의 교류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내려가는가? 올라가는가? 성인자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덜 경험하고 친밀감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자녀가 성숙해짐으로써 부모와 차이가 줄어들고 서로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부모와의 동일시를 경험하게 될 경우 자녀로서의 성숙(filial maturity)과정을 통해 부모를 이해하고 비슷한 성향을 갖게 된다(Suitor et. al., 1995). 40대 이후 성인자녀의 경우 대부분 부모가 건강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지적으로 성숙한 성인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하여 물질적/정서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60대 이후의 연령에서는 부모의 건강상태나 경제상태가 낮아짐에 따라 사적교류의 빈도나 지지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한 조사에서 부모-자녀 간의 사적 교류는 67.1%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며 사회인구학적 요소와 관련이 되어 있었다(김지경, 송은경, 2004). 경제적 교류가 존재했던 가구는 비교류 가구와 비교해서 가구주가 젊고 고학력이며 취업상태에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많았고, 경제적 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류액은 부모와 서로 주고받은 경우에서 그 금액이 더 높았다. 부모와의 상호교류의 주요한 결정인자는 가구주의 인구적 특징(성별, 나이, 교육)과 거주지역과 관련이 있었으며, 교류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가구주의 인구적 변인(성별, 연령, 교육), 가구 수입과 재산과 관련이 있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이변량 분석법에 해당되는 카이자승 검증, t-검증, 일원분산분석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다루었다.

연구문제 1: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집단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무엇이고, 생활만족도에 있

어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40대, 50대, 60대 이상의 독립표본을 구성하여 각각의 집단을 가구교류집단과 비교류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생활만족도와 차이가 있는가?

## 2. 실증자료 및 변수선택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9차(2006년)년도 자료이다. 분석을 위해 추출된 대상자들은 가구주의 연령이 40이상 중에서 자신의 부모님 중 작년(2005년) 한해 동안 한 달 이상 따로 살고 계시는 분이 있었던 1,2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40대 이상의 연령을 다시 40대 775명, 50대 395명, 60대 이상 110명으로 구분하여 연령층에 의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구주 부모님과 교류 방향 등을 파악하였다.

경제적 교류가 있었던 경우는 작년(2006년) 한해 동안 가구주의 부모님과 서로 주고 받은 적이 있는 양방적인 경우와, 일방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거나 혹은 부모님께 드렸던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며, 준 적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은 경제적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정의하였다.

선택된 변인은 사회인구적 요소(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형태, 주거형태, 취업유무, 따로 살고 계셨던 부모님, 부모님과 왕래정도, 교류방향,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적 상태(부채유무, 월 평균/작년 한 해 총소득, 금융/부동산 자산, 가계부담), 만족도 관련 변인(주관적 경제/건강상태, 가족수입/친인척/가족관계 만족도) 이며 변인 정의 및 변인 항목의 설명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가구의 총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및 기타 소득의 항목별 가구소득을 합한 액수로 집계하였다. 이전소득은 분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므로 제외하였다.

<표 1> 변인 정의 및 변인 값 설명

변인 이름	변인 정의	변인 값 설명
연령	40대, 50대, 60대 이상	
교육수준	학교(학력)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 1, 고등학교 = 2, 2년제 대학,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3
가구 형태		단독가구 = 1, 부부단독가구 = 2, 기타 = 3
입주 형태	자가, 전/월세, 기타	자가 = 1, 전/월세/기타 = 0
취업 유무		취업자 =1, 미취업자 = 0
따로 살고 계셨던 가구주부모님	따로 살고 계셨던 부모님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1, 가구주의 아버지 =2, 가구주의 어머니 =3
가구주 부모님과 왕래정도	작년(2005년) 한해 동안 가구주의 부모님과 어느 정도 왕래를 하셨습니까?	자주 찾아 뵈었다 =1. 가끔 찾아 뵈었다 =2. 거의 찾아 뵈지 않았다 =3. 가구주의
가구도움 받음	작년(2005년) 한해 동안 가구주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인 교류가 있으셨습니까? (일 반적으로 증여/상속을 제외한 경제적 교류를 의 미함)	
가구도움 드림	작년(2005년) 한해 동안 가구주의 부모님으로부터 드렸던 경제적인 교류가 있으셨습니까? (일 반적으로 증여/상속을 제외한 경제적 교류를 의 미함)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 = 1, 중 = 2, 하 = 3
부채 유무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 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 야 할 계, 기타 부채	1 = 있음. 0 = 없음.
월평균가구총소득	(지난한달)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 보험 수급액, 이전소득, 기타소득	1= 150만원 미만, 2=150-250만원미 만, 3=250-350만원 미만, 4=350만원 이상
작년 한해 총소득	가구주 및 전체의 연간 총 소득, 금융소득, 부동 산 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따로 사는 부모님, 따로 사는 자 녀의 도움, 그 외 친척, 친지 보조 금, 증여/상속, 축의금/조의금, 기타 등의 이전소득은 제외함)

<표 1> 변인 정의 및 변인 값 설명 - 계속

변인 이름	변인 정의	변인값 설명
금융자산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저축성 보험, 아직 따지 않은 계,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기타	천만원 미만 =1, 1천만원 - 5천만원 미만 =2, 5천만원 이상 =3
부동산 자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을 소유하였을 경우 이 부동산들의 시가 총액	없음 =1 5천만원 미만 =2, 5천만원 - 2억원 미만 =3, 2억원 이상 =4
가계 부담	___님 맥에서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에 대해 모두 답해 주십시오.	식비(식료품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관리비, 월세 등), 각종 빚(채무)의 원리금 상환
주관적 경제상태	_____님 맥의 현재 경제상태는 어떠십니까?	매우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는 편이다 = 1, 보통이다 = 2, 조금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3
주관적 건강상태	현재 ___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 1, 보통이다 = 2,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 3
생활 만족도	다음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가족의 수입 (2) 여가 생활 (3) 주거 관계 (4) 가족 관계 (5) 친인척 관계 (6) 사회적 친분 관계	매우 만족스럽다 = 1, 만족스럽다 = 2, 보통이다 = 3, 불만족스럽다 =4, 매우 불만족스럽다 = 5

## IV. 분석결과

### 1. 이변량 분석결과

연령 집단 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비교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40대 집단과 60대 이상 집단과의 차이가 가장 현저했는데, 40대 집단에서 가구주가 남자일 경우가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았다. 60대 연령 층에서 단독가구, 부부단독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주거형태가 자가인 경우가 제일 높았다. 40대에서 취업하고 있는 가구주의 비율이 높았다.

가구주 부모님과 왕래정도는 자주 찾아뵙는 비율은 40대에서 제일 높았지만, 가끔 찾아뵙는 비

율은 60대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으로 서로 주고 받은 경우는 40대 연령에서 제일 높았고, 받은 적만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역시 40대에서 제일 높았고, 교류가 없었다고 한 경우는 60대 이상의 연령 층에서 제일 높았다. 드린 적만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모든 연령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특히 5,60대에서는 거의 60%이었다. 이것은 현재 세대가 이전 세대와 가족문화로 인해 높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 모든 세대가 이전의 부모세대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주관적으로 판단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산층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0대에서 제일 높았지만 통계적 관련성은 약했다.

<표 2> 연령 집단 간의 사회인구학적 비교 (%)

변인	변인항목	40대 연령	50대 연령	60대 연령	카이자승/F (p)
성별	남자	700 (90.3)	334 (84.6)	81 (73.6)	27.20 (.00)
	여자	75 (9.7)	61 (15.4)	29 (26.4)	
교육수준	고졸미만	108 (13.9)	151 (38.2)	59 (53.6)	143.20 (.00)
	고졸	358 (46.2)	150 (38.0)	36 (32.7)	
	전문대 이상	309 (39.9)	94 (23.8)	15 (13.6)	
가구 형태	단독 가구	50 (6.5)	26 (6.6)	17 (15.5)	103.16 (.00)
	부부단독 가구	17 (2.2)	29 (7.3)	26 (23.6)	
	기타 가구	708 (91.4)	340 (86.1)	67 (60.9)	
주거형태	자가	450 (58.1)	281 (71.1)	79 (71.8)	23.02 (.00)
	전/월세, 기타	325 (41.9)	114 (28.9)	31 (28.2)	
취업 유무	취업	707 (91.2)	329 (83.3)	57 (51.8)	121.93 (.00)
	미취업	68 (8.8)	66 (16.7)	53 (48.2)	
따로 살고 계셨던 부모님	양친	372 (48.0)	101 (25.6)	10 (9.1)	101.66 (.00)
	아버지	46 (5.9)	38 (9.6)	7 (6.4)	
	어머니	357 (46.1)	256 (64.8)	93 (84.5)	
가구주 부모님과 왕래정도	자주 찾아뵙	394 (50.8)	183 (46.3)	43 (39.1)	10.37 (.04)
	가끔 찾아뵙	341 (44.0)	182 (46.1)	55 (50.0)	
	거의 찾아뵙지 않음	40 (5.2)	30 (7.6)	12 (10.9)	
교류방향	서로 주고 받음	132 (17.0)	39 (9.9)	3 (2.7)	27.03 (.00)
	받음	32 (4.1)	12 (3.0)	3 (2.7)	
	드림	414 (53.4)	234 (59.2)	65 (59.1)	
	교류없음	197 (25.4)	110 (27.8)	39 (35.5)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상	14 (2.1)	6 (1.8)	3 (3.4)	9.76 (.05)
	중	478 (71.2)	226 (68.3)	48 (55.2)	
	하	179 (26.7)	99 (29.9)	36 (41.4)	

연령 집단 별 소득, 재산 및 가계 부담에 관한 분석결과가 <표3>에 제시되어 있다. 40대 중에서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2%로 가장 높았으며, 월 평균 가구소득은 소득 범위가 올라갈수록 40대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총소득 또한 40대에서 제일 높았다. 사후 검정에서 40대와 60대의 총소득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은 연령 간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지만, 부동산 자산은 액수가 올라갈수록 60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올라갔다( $p = .09$ ). 가계 부담에 관한 변인 분석에서 60대 이상의 집단에서 의료비가 부담이 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40대는 교육비와 원금 상환이 부담이 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령에 의한 가계 부담의 내용이 다를 수 있었다.

<표 4>에서 주관적인 경제/건강상태, 생활만족도와 연령 간의 이변량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연령과 상관없이 '조금 어려운 편/매우 어려움'에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예상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하다고 느낀 비율이 높았다. 가족 수입에 관한 생활 만족도에서 40대 중에서 '매우 만족/만족'의 비율이 12.3%로 가장 높았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불만족/매우 불만족'의 비율이 약 42%~57%로 집계되어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어렵게 인식하고 있었다. 단일문항에 의한 친인척관계와 가족관계의 생활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이러한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60대에서도 친인척관계 만족도 41.7%, 가족관계 만족도 51.9%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여전히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세대 간 혹은 세대 내에서의 화목과 연대를 강조하는 우리의 가족문화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체적 생활만족도는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60대에서 가장 낮았고, 사후 검정 결과 40대와 60대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령 집단 별 소득, 재산 및 관련 변인과의 비교 (%)

변인	변인항목	40대	50대	60대	카이자승/F (p)
부채유무	있음	479 (61.8)	249 (63.0)	52 (47.3)	9.61 (.01)
	없음	296 (38.2)	146 (37.0)	58 (52.7)	
월평균 가구 총소득	150만원 미만	116 (15.0)	86 (21.8)	46 (41.8)	58.35 (.00)
	150-250만원 미만	192 (24.8)	95 (24.1)	30 (27.3)	
	250-300만원 미만	237 (30.6)	91 (23.0)	12 (10.9)	
	350만원 이상	230 (29.7)	123 (31.1)	22 (20.0)	
작년 한 해 총소득(단위: 만원) (표준편차)		3,925.83 (2,962.33)	4,052.22 (3,323.02)	2,509.39 (2,103.01)	11.67 (.00)
금융 자산	천만원 미만	187 (39.5)	87 (36.9)	27 (39.1)	1.43 (.84)
	1천만원-5천만원 미만	203 (42.8)	99 (41.9)	28 (40.6)	
	5천만원 이상	84 (17.7)	50 (21.2)	14 (20.3)	
부동산 자산	없음	597 (77.0)	284 (71.9)	75 (68.2)	11.11 (.09)
	5천만원 미만	34 (4.4)	23 (5.8)	9 (8.2)	
	5천만원-2억원미만	77 (9.9)	37 (9.4)	15 (13.6)	
	2억원 이상	67 (8.6)	51 (12.9)	11 (10.0)	
가계부담-식비	예	153 (19.7)	87 (22.0)	24 (21.8)	.94 (.626)
	아니오	662 (80.3)	308 (78.0)	86 (78.2)	
가계부담-의료비	예	21 (2.7)	20 (5.1)	21 (19.1)	56.14 (.00)
	아니오	754 (97.3)	375 (94.9)	89 (80.9)	
가계부담-교육비	예	446 (57.5)	134 (33.9)	15 (13.6)	110.90 (.00)
	아니오	329 (42.5)	261 (66.1)	95 (86.4)	
가계부담-주거비	예	133 (17.2)	61 (15.4)	27 (24.5)	5.01 (.08)
	아니오	642 (82.8)	334 (84.6)	83 (75.5)	
가계부담- 원금상환	예	218 (28.1)	131 (33.2)	19 (17.3)	10.98 (.01)
	아니오	557 (71.9)	264 (66.8)	91 (82.7)	

<표 4> 연령 집단 간의 주관적 경제 & 건강상태, 생활 만족도 비교 (%)

변인	변인항목	40대	50대	60대	카이자승/F (p)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 여유/ 여유 있는 편	44 (5.7)	20 (5.1)	9 (8.2)	1.57 (.82)
	보통	307 (39.6)	158 (40.0)	43 (39.1)	
	조금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424 (54.7)	217 (54.9)	58 (52.7)	
주관적 건강상태	아주 건강/ 건강한 편	465 (60.0)	192 (48.6)	35 (31.8)	63.81 (.00)
	보통	234 (30.2)	135 (34.2)	37 (33.6)	
	건강하지 않은 편/ 아주 안 좋음	76 (9.8)	68 (17.2)	38 (34.5)	
생활만족도- 가족수입	매우 만족/만족	94 (12.3)	35 (9.0)	7 (6.5)	12.12 (.02)
	보통	352 (46.0)	180 (46.5)	39 (36.1)	
	불만족/매우 불만족	319 (41.7)	172 (44.4)	62 (57.4)	
생활만족도- 친인척관계	매우 만족/만족	383 (50.1)	164 (42.4)	45 (41.7)	24.28 (.00)
	보통	356 (46.5)	209 (54.0)	50 (46.3)	
	불만족/매우 불만족	26 (3.4)	14 (3.6)	13 (12.0)	
생활만족도- 가족관계	매우 만족/만족	501 (65.5)	226 (58.4)	56 (51.9)	16.36 (.00)
	보통	231 (30.2)	145 (37.5)	41 (38.0)	
	불만족/매우 불만족	33 (4.3)	16 (4.1)	11 (10.2)	
총체적생활만족도 (표준편차)		16.60 (2.92)	16.94 (2.94)	17.39 (3.37)	4.32 (.01)

## 2. 연령 대를 고려하여 가구교류 유무로 분류한 분석결과

<표 5>는 연령대를 40, 50, 60대 이상의 세 집단으로 형성하고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가구교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분류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분석결과를 정리하였다.

4,50대 집단에서는 성별과 교육수준 간에 차이가 있어 가구교류가 있었을수록 남자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았을 경우의 비율이 높았으나, 60대 이상의 그룹에서는 가구교류유무와 성별과 교육수준과의 관련성은 없었다. 즉, 6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가구교류와 상관없이 남자인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단독, 부부단독, 자녀/기타 가구)와 가구교류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40대일 경우에서만 통계적 관련성이 있어서 가구교류가 있었던 집단에서 부부단독가구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거주 형태에 있어서는 4,50대에서 가구교류가 있었을 경우 전/월세에 살고 있는 경우가 높았고, 스스로 소유한 집에서 살고 있을 비율이 낮았다. 취업유무와 가구교류와의 관련성은 모든 연령층에서 가구교류가 있었을 경우 취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에 있어서 가구주가 취업을 했을 경우 자신의 부모와 교류가 있었던 경우가 높았다. 연령과 상관없이 가구교류유무와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과는 관련성이 없었다. 모든 연령층에 걸쳐서 가구교류가 있었을 경우 그들의 부모와 ‘자주 찾아 뵙는’경향이 높았다. 이것은 사적 경제적 교류가 가족지지의 형태로서 도구적 지지의 역할 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4,50대에서만이 가구교류가 있었을 경우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표 6>은 연령 집단 별로 가구교류 유무에 의한 소득, 재산, 가계부담 등에 관한 비교결과이다. 4,50대에서는 경제적 상태가 좋을수록 가구교류가 있었던 비율이 높았지만 60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 4,50대에서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작년 한 해 총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자산 혹은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부모님과 사적 경제적 이전이 있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60대에서는 사적 교류가 있었던 경우 경제적 상태가 높았지만 작년 한해 총소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통계적 유의성에 미치지 못했다. 60대에서 부모세대와 사적 교류가 있었을 경우 작년 한 해 총소득이 높았다. 가계부담의 경우 교류가 없었던 경우에 있어서 모든 연령층에서 식비, 의료비, 주거비, 원금상환에 부담을 느낀다고 하여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은 경우 이전 세대와 사적 경제적 교류가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는 대부분 통계적 관련성은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경우, 가구교류가 있었던 집단에서 높게 나와 경제적 상태가 좋을 경우 자녀교육이 많은 재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담의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7>은 연령 별로 분석한 가구교류유무와 주관적 경제/건강상태, 생활만족도와 비교 결과이다. 모든 연령에서 가구교류가 있었던 경우에 주관적 경제상태가 ‘매우 여유/여유있는 편’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에 있어서도 ‘아주 건강/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생활만족도의 경우 단일 문항에 의한 만족도와 모든 영역을 합산한 총체적 만족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3 영역(가족수입, 친인척관계,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만족도를 단일문항을 통해 비교했을 때 모든 연령에서 가구교류가 있었을 경우 ‘매우 만족/만족’의 비율이 높았다. 친인척관계와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4,50대 표본에서 가구교류가 있었을 경우 ‘매우 만족/만족’의 비율이 높았지만, 60대 표본에서는 통계적 관련성이 없었다. 총체적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도 4,50대 표본에서만 가구교류가 있을 경우 만족도의 평균이 높았지만, 60대 표본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것은 4,50대에서는 서로가 주고 받는 상호 호혜적 사적 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60대가 넘었을 경우 매우 연로해진 노부모와의 사적 교류는 일방적 이전의 경우가 많아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자발적인 경우보다 자식으로서의 의무감이나 효도 문화와 같은 사회적 관습에 의해 생활비나 병원비를 보조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4,50대에서는 사적 경제적 교류가 일어났을 경우, 도구적 지지나 정서적 지지로서 가족/친척 간의 생활만족도를 높였지만, 60대 이상의 연령 층에서는 자신의 연로한 부모와 상호교류

가 낮았으며, 사적 경제적 교류가 일방적으로 일어나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여 만족도를 높이기  
가 힘든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연령 집단 간의 사적 교류여부와 사회인구학적 비교 (%)

변인	변인항목	40대		t/χ <sup>2</sup>	50대		t/χ <sup>2</sup>	60대		t/χ <sup>2</sup>
		yes	no		yes	no		yes	no	
성별	남자	537 (92.9)	163 (82.7)	17.37 (.00)	250 (87.7)	84 (76.4)	7.84 (.01)	55 (77.5)	26 (66.7)	1.51 (.22)
	여자	41 (7.1)	34 (17.3)		35 (12.3)	26 (23.6)		16 (22.5)	13 (33.3)	
교육수준	고졸미만	61 (10.6)	47 (23.9)	29.32 (.00)	97 (34.0)	54 (49.1)	9.42 (.01)	33 (46.5)	26 (66.7)	4.14 (.13)
	고졸	262 (45.3)	96 (48.7)		111 (38.9)	39 (35.5)		27 (38.0)	9 (23.1)	
	전문대 이상	255 (44.1)	54 (27.4)		77 (27.0)	17 (15.5)		11 (15.5)	4 (10.3)	
가구형태	단독 가구	29 (5.0)	21 (10.7)	8.15 (.02)	18 (6.3)	8 (7.3)	.30 (.86)	10 (14.1)	7 (17.9)	3.92 (.14)
	부부 단독 가구	14 (2.4)	3 (1.5)		20 (7.0)	9 (8.2)		21 (29.6)	5 (12.8)	
	자녀/기타 가구	535 (92.6)	173 (87.8)		247 (86.7)	93 (84.5)		40 (56.3)	27 (69.2)	
	거주 형태	225 (38.9)	100 (50.8)		72 (25.3)	42 (38.2)		18 (25.4)	13 (33.3)	
거주 형태	전/월세, 기타	353 (61.1)	97 (49.2)	8.45 (.00)	213 (74.7)	68 (61.8)	6.45 (.01)	53 (74.6)	26 (66.7)	.79 (.37)
	취업유무	546 (94.5)	161 (81.7)		29.78 (.00)	253 (88.8)		76 (69.1)	22.09 (.00)	
따로 살고 계셨던 부모님	취업	32 (5.5)	36 (18.3)	32 (11.2)		34 (30.9)	27 (38.0)	26 (66.7)		
	양친	289 (50.0)	83 (42.1)	3.78 (.15)	76 (26.7)	25 (22.7)	.79 (.67)	8 (11.3)	2 (5.1)	2.48 (.29)
아버지	34 (5.9)	12 (6.1)	28 (9.8)		10 (9.1)	3 (4.2)		4 (10.3)		
	어머니	255 (44.1)	102 (51.8)		181 (63.5)	75 (68.2)		60 (84.5)	33 (84.6)	
가구주 부모님과 왕래정도	자주 찾아뵙 기	324 (56.1)	70 (35.5)	70.75 (.00)	148 (51.9)	35 (31.8)	37.97 (.00)	37 (52.1)	6 (15.4)	21.68 (.00)
	가끔 찾아뵙 기	245 (42.4)	96 (48.7)		129 (45.3)	53 (48.2)		32 (45.1)	23 (59.0)	
	거의 찾아뵙 지 않음	9 (1.6)	31 (15.7)		8 (2.8)	22 (20.0)		2 (2.8)	10 (25.6)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14 (2.7)	0 (0.0)		31.63 (.00)	6 (2.4)		0 (0.0)	15.94 (.00)	
중	389 (75.7)	89 (56.7)	183 (73.2)	43 (53.1)		32 (56.1)	16 (53.5)			
하	111 (21.6)	68 (43.3)	61 (24.4)	38 (46.9)		22 (38.6)	14 (46.7)			

<표 6> 연령 집단 별 사적교류 유무와 소득, 재산 및 관련 변인과의 비교 (%)

변인	변인 항목	40대		t/χ <sup>2</sup>	50대		t/χ <sup>2</sup>	60대		t/χ <sup>2</sup>
		yes	no		yes	no		yes	no	
부채유무	있음	361 (62.5)	118 (59.9)	.41 (.52)	180 (63.2)	69 (62.7)	.01 (.94)	36 (50.7)	16 (41.0)	.95 (.33)
	없음	217 (37.5)	79 (40.1)		105 (36.8)	41 (37.3)		35 (49.3)	23 (59.0)	
월평균 가구 총소득	150만원 미만	64 (11.1)	52 (26.4)	48.46 (.00)	42 (14.7)	44 (40.0)	33.30 (.00)	25 (35.2)	21 (53.8)	6.71 (.08)
	150-200만원 미만	138 (23.9)	54 (27.4)		71 (24.9)	24 (21.8)		19 (26.8)	11 (28.2)	
	250-300만원 미만	172 (29.8)	65 (33.0)		68 (23.9)	23 (20.9)		8 (11.3)	4 (10.3)	
	350만원 이상	204 (35.3)	26 (13.2)		104 (36.5)	19 (17.3)		19 (26.8)	3 (7.7)	
작년 한 해 총소득(표준편차)		4318.5 (3167.3)	2729.0 (1751.2)	6.6	4573.4 (3610.3)	2668.9 (1780.4)	5.2	2838.8 (2185.8)	1859.7 (1784.5)	2.3
금융자산	천만원 미만	140 (35.6)	47 (58.0)	15.14 (.00)	64 (33.5)	23 (51.1)	5.22 (.07)	18 (37.5)	9 (42.9)	.18 (.92)
	1천만원-5천 만원미만	176 (44.8)	27 (33.3)		83 (43.5)	16 (35.6)		20 (41.7)	8 (38.1)	
	5천만원 이상	77 (19.6)	7 (8.6)		44 (23.0)	6 (13.3)		10 (20.8)	4 (19.0)	
부동산 자산	없음	424 (73.4)	173 (87.8)	18.31 (.00)	189 (66.3)	95 (86.4)	16.00 (.00)	45 (63.4)	30 (76.9)	4.00 (.26)
	5천만원 미만	31 (5.4)	3 (1.5)		20 (7.0)	3 (2.7)		5 (7.0)	4 (10.3)	
	5천만원-2억 원미만	64 (11.1)	13 (6.6)		31 (10.9)	6 (5.5)		12 (12.9)	3 (7.7)	
	2억원 이상	59 (10.2)	8 (4.1)		45 (15.8)	6 (5.5)		9 (12.7)	2 (5.1)	
가계부담 -식비	예	102 (17.6)	51 (25.9)	6.30 (.01)	57 (20.0)	30 (27.3)	2.44 (.12)	14 (19.7)	10 (25.6)	.52 (.47)
	아니오	476 (82.4)	146 (74.1)		228 (80.0)	80 (72.7)		57 (80.3)	29 (74.4)	
가계부담 -의료비	예	12 (2.1)	9 (4.6)	3.46 (.06)	9 (3.2)	11 (10.0)	7.73 (.01)	17 (23.9)	4 (10.3)	3.05 (.08)
	아니오	566 (97.9)	188 (95.4)		276 (96.8)	99 (90.0)		54 (76.1)	35 (89.7)	
가계부담 -교육비	예	348 (60.2)	98 (49.7)	6.58 (.01)	95 (33.3)	39 (35.5)	.16 (.69)	9 (12.7)	6 (15.4)	.16 (.69)
	아니오	230 (39.8)	99 (50.3)		190 (66.7)	71 (64.5)		62 (87.3)	33 (84.6)	
가계부담 -주거비	예	90 (15.6)	43 (21.8)	4.05 (.04)	41 (14.4)	20 (18.2)	.88 (.35)	15 (21.1)	12 (30.8)	1.26 (.26)
	아니오	488 (84.4)	154 (78.2)		244 (85.6)	90 (81.8)		56 (78.9)	27 (69.2)	
가계부담 -원금 상환	예	160 (27.7)	58 (29.4)	.23 (.64)	92 (32.2)	39 (35.5)	.36 (.55)	10 (14.1)	9 (23.1)	1.43 (.23)
	아니오	418 (72.3)	139 (70.6)		193 (67.7)	71 (64.5)		61 (85.9)	30 (76.9)	

<표 7> 연령 집단 간의 사적 경제적 교류와 주관적 경제/건강상태 및 생활만족도 비교 (%)

변인	변인항목	40대		t/x <sup>2</sup>	50대		t/x <sup>2</sup>	60대		t/x <sup>2</sup>
		yes	no		yes	no		yes	no	
주관적 경제 상태	매우 여유/ 여유있는 편	40 (6.9)	4 (2.0)	28.24 (.00)	18 (6.3)	2 (1.8)	21.97 (.00)	8 (11.3)	1 (2.6)	14.37 (.00)
	보통	253 (27.4)	54 (27.4)		131 (46.0)	27 (24.5)		35 (49.3)	8 (20.5)	
	조금 어려운편/ 매우 어려움	285 (49.3)	139 (70.6)		136 (47.7)	81 (73.6)		28 (39.4)	30 (76.9)	
주관적 건강 상태	이주건강 /건강한편	379 (65.6)	86 (43.7)	32.48 (.00)	160 (56.1)	32 (29.1)	25.86 (.00)	27 (38.0)	8 (20.5)	6.09 (.05)
	보통	156 (27.0)	78 (39.6)		88 (30.9)	47 (42.7)		25 (35.2)	12 (30.8)	
	건강하지 않은편/이주 안 좋음	43 (7.4)	33 (16.8)		37 (13.0)	31 (28.2)		19 (26.8)	19 (48.7)	
생활만 족도- 가족 수입	매우만족/ 만족	84 (14.7)	10 (5.1)	44.76 (.00)	31 (11.1)	4 (3.7)	20.86 (.00)	6 (8.7)	1 (2.6)	9.61 (.01)
	보통	287 (50.4)	65 (33.3)		144 (51.4)	36 (33.6)		31 (44.9)	8 (20.5)	
	불만족/ 매우 불만족	199 (34.9)	120 (61.5)		105 (37.5)	67 (62.6)		32 (46.4)	30 (76.9)	
생활만 족도- 친인척 관계	매우만족/ 만족	316 (55.4)	67 (34.4)	28.17 (.00)	132 (47.1)	32 (29.9)	13.55 (.00)	29 (42.0)	16 (41.0)	2.15 (.34)
	보통	240 (43.1)	116 (59.5)		142 (50.7)	67 (62.6)		34 (49.3)	16 (41.0)	
	불만족/ 매우 불만족	14 (2.5)	12 (6.2)		6 (2.1)	8 (7.5)		6 (8.7)	7 (17.9)	
생활만 족도- 가족 관계	매우만족/ 만족	408 (71.6)	93 (47.7)	37.24 (.00)	178 (63.6)	48 (44.9)	11.61 (.00)	38 (55.1)	18 (46.2)	.95 (.62)
	보통	140 (24.6)	91 (46.7)		93 (33.2)	52 (48.6)		25 (36.2)	16 (41.0)	
	불만족/ 매우 불만족	22 (3.9)	11 (5.6)		9 (3.2)	7 (6.5)		6 (8.7)	5 (12.8)	
총체적생활만족도 (표준편차)		16.19 (2.84)	17.79 (2.84)	- 68	16.44 (2.85)	18.24 (2.77)	- 5.67	16.97 (3.45)	18.15 (3.11)	- 1.79

## V.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중년이상의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교류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적 경제적 이전은 연령에 의해 차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연령구분에 의한 사적 이전이 생활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연령 층에 따라 사적 경제적 이전 유무에 의해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서 경제적 역할전도(role reversal)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40대에서는 주고받는 양방교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가, 연령이 올라갈수록 받았다라는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일방적으로 드린 적이 있었다는 비율이 반대로 올라갔다. 40대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적만 있다는 비율이 제일 높았는데 비해, 60대 중에서 드린 적만 있다는 비율이 제일 높았다.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교류가 줄어들어서 60대에서 전혀 교류가 없었던 경우가 가장 높았다. 부모님과 왕래정도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자주 찾아 뵈었다’는 빈도가 줄어들고 ‘가끔 찾아 뵈었다’는 빈도가 늘어나기는 했으나 60대에서 자주 혹은 가끔 찾아 뵈었다가 89%에 이르러 노부모에 대한 가족 지지가 여전히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가족중심적인 가족문화가 유효하기 때문에 국가가 전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가족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친가족적 공공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통계청의 조사와 일치하였다. 통계청의 조사에서 30대를 정점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부모와의 만족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친척/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연령이 올라갈수록 단일 문항의 친인척 및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낮았고, 총체적 생활만족도 또한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연령집단 끼리 비교한 연령차이(age difference)에 의한 것이므로, 연령코호트 별로 조사하였을 경우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40대와 60대의 비율이 가장 차이가 심해서 40대가 제일 높게 만족하였고 60대가 제일 낮았다. 이것은 4,50대의 경우에는 교환이론에 의해 서로가 준 적이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빈도가 높아서 상호 호혜적이 되지만, 60대에 이르러서는 세대 간에 교류가 일방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60대의 경우 질병, 소득 등으로 부모의존(parental dependency)이 높아져서 더 이상 사적교류를 통해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의 가족적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40, 50, 60대에서 자녀 양육/생활비 마련 등 세대 간의 관심사가 다르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 4,50대는 여전히 자신의 부모와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상호교류에 의해 심리적인 위안이 되기도 하여 사적 교류가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을 것이다. 가족관계는 사회적 지지망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족통합의식을 갖게 하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틀림이 없으나 교류의 이유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4,50대에서는 사적 이전이 있었던 집단에서 친인척이나 가족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았는데, 60대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있었지만 통계적 관련성은 없었다. 60대의 성인자녀 가구주일 경우

이들 자신이 이미 노인기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나이가 된 노부모와 경제적 교류를 통해서 삶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연로한 부모가 거의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보통이하일 것이고 게다가 사회경제적으로 성인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힘든 상황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60대에서 사적교류유무와 관계없이 친인척/가족관계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서 여전히 노인기 자녀-부모 세대가 애착심(attachment)과 공유(bonding)의식을 갖고 생활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여 가족 간의 이전소득이 큰 역할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연령 집단에 의한 사적이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성인자녀가 부모와 사적 소득이전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사회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부모 세대와 단절하여 핵가족의 복지만을 고집한다면 국가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4,50대의 경우 사적교류가 있었던 집단 중에서 교육수준, 소득, 자산 등 높았으며, 가족/친척 간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즉, 재산이나 소득이 많거나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의식 뿐 아니라 세대 간의 교류가 유리할 것이며 이러한 조건이 은퇴이후 노년기에도 이어질 것이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재산/소득 보존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지경, 송은경 (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따로 사는 부모가구와 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 - 89.
- 통계청 (2007). 사회통계조사.
- Khan, R.L. (1994). Social support: Content, causes, and consequences. In R.P. A. Abeles., H.C. Gift., & M.G. Ory (Eds.), *Aging and Quality of Lif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63-184.
- Sutor, et. all., (1995). Aged parents and aging children: Determinants of relationship quality. In R. Blieszner & V.H. Bedford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Family*.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223-242.